

수지, 드라마 '당신이 잠든 사이에' 출연 확정

가수 겸 연기자 수지가 내년 SBS에서 방송하는 드라마 '당신이 잠든 사이에'(가제) 출연을 확정했다. 이 드라마는 미래의 사건사고를 꿈으로 미리 볼 수 있는 여자와 그 꿈이 현실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검사(이종석)의 이야기다.



1997년 데뷔한 잭스키스와 S.E.S가 20주년을 앞두고 나란히 재결성해 주목받고 있다. 2000년 해체됐던 16년 만에 재결성한 잭스키스는 9월 공연과 10월 싱글에 이어 12월 1일 '2016 리-앨범'이란 음반을 내놓는다. 2002년 해체된 S.E.S는 28일 싱글을 내고 12월에는 공연을 펼치며 내년 1월 새 앨범을 발표한다. 같은 해 데뷔해 같은 해 재결성으로 주목받는 두 팀이지만 그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잭스키스 '추억팔이' vs S.E.S '추억소환'



'1세대 아이돌' 잭스키스(왼쪽 사진)와 S.E.S가 복귀하며 저력을 과시하고 있다. 추억을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지나친 우려먹기로 팬들의 기대감을 반감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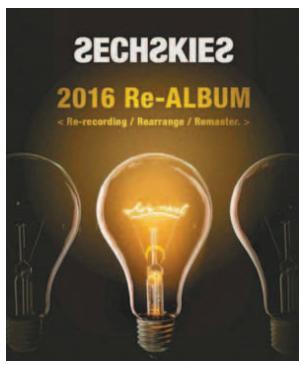


사진제공 | YG엔터테인먼트·SM엔터테인먼트

잭스키스 16년만의 새 앨범에 신곡은 한 곡뿐...팬들도 아쉬움

'1세대 아이돌' 그룹이 잇따라 컴백하는 가운데 잭스키스의 신곡을 두고 "지나친 추억팔이"라는 우려의 시선이 나오고 있다.

9월 열린 재결합 콘서트로 활동을 시작한 잭스키스는 해체 16년 만인 12월 1일 새 앨범을 내놓는다. 하지만 말이 좋아 '새' 앨범이지, '재탕'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이렇듯 '리앨범'(Re-ALBUM), '다시'라는 뜻이다. '커피', '기사도', '연정' 등 '타이틀곡을 무려 3곡이나 선정했다"면서 최근 공개한 앨범 전체 리스트곡에는 신곡이 1곡뿐이고, 나머지 10곡은 모두 잭스키스의 과거 히트곡이다. 그나마 1곡의 신곡도 앞서 9월 열린 콘서트에서 공개해 화제를 모았던 '세 단어'다. 당시 콘서트에서 멤버들은 "2곡의 신곡을 만들었다"고 팬들에게 알려 기대감을 키웠지만, 나머지 1곡은 끝내 공개되지 않았다. 최근 일본 삿포로에서 촬영



했다는 뮤직비디오도 과거 히트곡 '커피'이고, '세 단어' 역시 9월 콘서트 준비 과정을 편집해 담았다.

잭스키스가 새 앨범을 통해 방송 활동을 시작한다고 알려지면서 팬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얼마나 기다린 새 앨범인데 웬 리메이크이냐" "결국 '추억팔이'라며 당황해 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그래도 활동하는 것이 어디냐"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또 잭스키스는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의 스타일에 맞게 완전히 달라진 음악을 기대해 달라"는 당부를 내렸지만 최근 열린 '멜론 뮤직 어워즈'에서 새롭게 리메이크해 선보인 '컴백'이 과거의 감성까지 지웠다는 의견이 많다. 이들이 재결합하기 전 "절대 '추억팔이'에 지나치지 않겠다"며 팬들과 굳게 한 약속이 결국 수포로 돌아간 셈이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S.E.S 신곡 '러브(스토리)' 3집 '러브' 재해석...7개 실시간 차트 2위

그룹 S.E.S가 14년 만에 재결성해 발표한 노래가 첫날 음원차트를 강타하면서 '왕년의 아이돌'이 일으킨 재결성 신드롬을 이어가고 있다.

S.E.S가 28일 내놓은 '러브(스토리)'는 오후 1시 현재 지니 엠넷닷컴 네이버뮤직 소리바다 올레뮤직 벅스뮤직 몽키3 등 7개 음악사이트의 실시간 차트 2위에 올랐다. 멜론에서도 15위를 기록 중이다. 이로써 여성그룹으로는 첫 재결성이자 걸그룹 시대를 연 1세대로서 자존심을 세우고 있다. 앞서 2014년 god가 12년 만에 원년 멤버로 재결성해 성공을 거둔 이후 1990년대 가수들에게 큰 자극이 됐다. S.E.S의 성공으로 다른 '왕년의 걸그룹'에게도 재결성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S.E.S의 유진과 수는 결혼과 출산을 경험한 기혼자들이다. 실제로 현재 가수 팬들 사이에선 핑클, 베이비복스 등에 대한 재결성 요구가 높다.

S.E.S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고 있는 '러브(스토리)'는 1999년 3집 수록곡 '러브'를

재해석한 곡이다.

S.E.S 데뷔곡 '아임 유어 걸' 후렴구를 절묘하게 삽입시키고 랩 부분을 새로 만들어 색다른 느낌을 준다. 특히 '우린 이미 솔투 솔 흔들림 없는 관계 / 말 안 해도 아는 거지 저스트 어 팰링 / U 너와 내가 감싸 안으면 / 우리 둘은 사랑이라는 이름의 용기 / 아이 러브 유 인 더 트와일라잇 존 / 네 환한 미소는 마치 잊혀진 러브스 컴트루 / 난 너를 사랑해 오 마이 러브 리멤버 / 원 신 사이 보이!! / 코즈 아임 유어 걸' 부분은 과거 발표했던 노래들의 제목을 엮어 만든 것이어서 S.E.S와 팬들에게 의미와 감동을 준다.

'러브(스토리)'로 성공적인 재결성 활동을 시작한 S.E.S는 12월 30·31일 서울 세종대 대강홀에서 콘서트를 갖는다. '러브(스토리)'에 쏠린 관심은 '예매 전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데뷔 20주년의 해가 시작되는 1월에는 신곡을 앞세운 스페셜 앨범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원경 기자 gymmy@donga.com

리메이크 '불신의 시대'

일부 해외 드라마나 영화의 리메이크작이 기대보다 우려의 목소리를 낳고 있다. 과거와 달리 유명 작품을 리메이크하면서 그 완성도가 원작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다.

최근 홍콩영화 '침밀밀'이 내년 방송을 목표로 드라마로 리메이크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팬들은 분분한 의견을 내고 있다. 2000년대 한 차례 리메이크 계획이 무산된 바 있어 방송가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리밍(여명)과 장만위(장만숙) 주연의 영화는 1997년 개봉 당시 높은 인기를 끈 작품으로, 국내 버전에서 남자 주인공은 탈북자나 조선족으로 그려질 계획이다. 팬들은 국내 연기자들의 활약에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침밀밀"만큼은 건들지 말길"이라며 "좋아하는 영화인데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등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실 '침밀밀'과 같이 국내에서 막



영화 '침밀밀'

강한 팬덤을 지닌 작품은 리메이크하기가 까다롭다. 특히 원작의 팬들과 일반 시청자 사이의 접점을 찾기가 더욱 어렵다. 국내 정서에 맞게 각색 과정을 거치지만 원작이 지닌 색깔과 특유의 분위기를 제대로 살려내지 못해 비난을 받기 일쑤였다. 케이블채널 tvN 금토드라마 '안투라지'가 대표적이다. 원작과 전혀 다른 느낌이 라는 지적 속에 드라마는 미국 HBO가 시즌8까지 방송한 것을 리메이크한다는 명성에 어울리지 않게 1%대 시청률로 부진에 허덕이고 있다.

내년에는 미국드라마 '크리미널 마인드'와 '슈츠', 일본드라마 '마더'와

'얼음의 세계'가 리메이크된다. 범죄 수사물인 '크리미널 마인드'는 시즌 12, 법정 이야기를 그리는 '슈츠'는 시즌 6까지 제작돼 국내에서도 많은 시청자가 즐겨봤다. 국내에선 장르물이 성공한 사례가 흔치 않지만, 앞서 '굿 와이프'가 인기리에 방송한 점에서 위안을 받는다.

'마더'와 '얼음의 세계'는 각각 아동 학대와 살인사건을 둘러싼 미스터리라는 지적 속에 드라마는 미국 HBO가 시즌8까지 방송한 것을 리메이크한다는 명성에 어울리지 않게 1%대 시청률로 부진에 허덕이고 있다.

내년에는 미국드라마 '크리미널 마인드'와 '슈츠', 일본드라마 '마더'와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등지 밖으로 떠난 '비스트'

소속사 계약 끝...법인 설립 진행

한 달 남게 '무소속' 상태였던 그룹 비스트가 결국 홀로서기에 나선다.

28일 한 관계자에 따르면 비스트는 애초 계획대로 자신들만의 회사를 설립해 독자적인 활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관계자는 "법인 설립 등 독자활동을 위한 제반 사항이 마무리되고 있어 조만간 정식 계약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비스트는 독자회사 설립을 완료하는 대로 이를 팬들에게 알린다는 계획이다.

당초 비스트는 10월 15일자로 큐브와 전속계약이 만료된 후 독자활동의 의지를 밝힐 것으로 관측됐다. 전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큐브)로부터 "산하 레이블에서 독립적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제안을 받기도 했다. 큐브 측의 이 같은 '마지막 제안'까지 나오면서 U턴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 또 홍콩의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부터 투자를 받아 자신들을 위한 법인을 설립하고 이 법인과 전속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독자활동을 벌여 나가기로 했지만, 내부사정으로 법인 설립이 지연되면서 비스트는 예기치 못한 '무소속 가수'가 됐다.

이런 과정을 거친 비스트는 팀 이름을 사용할 수 없고, 큐브에서 발표한 자신들의 노래를 부르기 어려운 상황에서 닥치더라도 이를 감내하겠다는 각오까지 다진 것으로 전해졌다.

비스트는 큐브와 계약 만료 이후 멤버별로 개인 활동을 하면서 사실상 독자활동을 이미 시작했다는 평가도 있다. 이기광은 OCN 웹드라마 '모민의 방'에 출연했고, 용준형은 정현돈과 함께 MBC에브리원 '히트제조기' 시즌3에 투입됐다. 손동운은 JTBC '싱 포 유'에 게스트로 나서고, 양요섭은 12월 19일 첫 방송되는 KBS 2TV 월화드라마 '화랑' OST에 참여한다. 김원경 기자

연예뉴스 스테이션

개그우먼 이세영, B1A4 성희롱 논란에 사과문

개그우먼 이세영이 아이돌그룹 B1A4를 성희롱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직접 사과문을 올렸다. 이세영은 2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현장에서 각 멤버에 사과드렸다. 팬들에게도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겠다"고 거듭 사과했다. 논란은 이세영이 출연 중인 케이블채널 tvN 'SNL코리아 시즌8' 측이 'B1A4 캐스팅 비화' 영상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영상 속 이세영은 이날 게스트로 출연한 멤버들의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듯한 행동을 해 논란을 샀다.

드라마 '푸른 바다의 전설' 콘텐츠 영향력 1위

톱스타 전지현과 이민호가 등장하자마자 힘을 과시했다. 이들이 주연하는 SBS 수목드라마 '푸른 바다의 전설'이 방송 일주일 만에 콘텐츠 영향력 1위를 차지했다. 28일 CJ E&M과 닐슨코리아가 발표한 11월 14일부터 20일까지 셋째 주 콘텐츠 영향력 지수 순위에 따르면 '푸른 바다의 전설'이 1위에 올랐다. 16일 첫 방송한 드라마는 20%에 육박하는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다. 2위는 MBC 수목드라마 '여도요정 김복주', 3위는 MBC '무한도전', 4위는 SBS '일요일이 좋다-런닝맨', 5위는 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이다.

'황치열의 흔적 찾아...' 해외 팬들 구미 여행

가수 황치열의 해외 팬들이 그의 고향인 경북 구미를 찾았다. 중국을 비롯해 대만, 홍콩, 싱가포르, 북미 등 국내외 200여명의 팬들이 28일 구미 금오산과 시내 등을 둘러보며 황치열의 추억을 찾아가는 여행을 즐겼다. 이어 금오산 올레길 입구에 기념벤치와 조형물을 설치하고 황치열의 모교인 경주고교에서 기념 식수를 하고 농구대를 기증했다. 이번 여행은 팬클럽 '치열사랑나눔모임'이 주최했다.

티파니, 파 이스트 무브먼트 뮤비 출연

여성그룹 소녀시대의 티파니가 파 이스트 무브먼트 뮤직비디오에도 출연하며 의리를 과시했다. 티파니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최근 파 이스트 무브먼트의 '돈 스피크' 뮤직비디오 촬영을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티파니는 지난달 발표한 이들의 앨범에 피쳐링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파 이스트 무브먼트는 중국계 미국인 캐비 니시, 재미교포 프로그레스와 DJ 버맨 등으로 구성된 다국적 일렉트로닉 그룹으로 미국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영화 '곡성' 내년 3월 일본서 개봉

나훈진 감독의 영화 '곡성'이 내년 3월 11일 일본에서 개봉한다. 지난 5월 국내 개봉한 '곡성'은 687만명을 동원하며 인기를 얻었다. 올해 칸 국제영화제에서도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일본 개봉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무엇보다 현지 연기와 배우 쿠니무라 준의 활약에 국내 팬이 높은 호응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에 현지 반응이 궁금증을 자아낸다. 나훈진 감독을 포함해 출연자들은 현지 개봉을 앞두고 프로모션에 나설 예정이다.

■ 빅마우스

●"문화적 결혼 소식, 충격이었다."(가수 토니안) 28일 열린 케이블채널 온스타일 뷰티 버라이어티 '립스틱 프린스' 제작발표회에서, H.O.T 동료 문화존의 깜짝 결혼 발표에 "그저 행복하게만 살아가라"며,

●"유아인은 댕깅 들고 나와 롱만 갈아도 역대급."(누리꾼 kimb****) 유아인이 12월 2일 홍콩에서 열리는 '2016 MAMA' 무대에서 퍼포먼스를 선보인다는 28일 기사 댓글에서.

앱스토어 게임 매출 랭킹

11월 28일 기준

순위	게임명	서비스사
1	모두의 마블 for Kakao	Netmarble Games
2	데스티니 차일드 for Kakao	Next Floor Corp.
3	MARVEL 퓨처파이트	NEXON Company
4	듀오리진	Webzen Inc.
5	세븐나이츠 for Kakao	Netmarble Games
6	FIFA ONLINE 3M	NEXON Company
7	프렌즈팝콘 for Kakao	Kakao Corp.
8	히트	NEXON Company
9	메이플스토리M	NEXON Company
10	벨이 되어라 for Kakao	GAMEVIL

편집 | 김대진 기자 bong82@donga.com